

home / life / **economy**

## 치아교정 “언제 시작해야 좋을까?”



[박영준 기자] 치아교정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적의 시기에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너무 빠르거나 늦게 치료를 시작하면 교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성장 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궁금증 중 하나는 “아이의 고르지 못한 치열을 언제 교정해야 효과적일까”에 대한 물음이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란 시점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지만 어릴 때부터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교정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나이 대는 9~15세라고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소아 때부터 굳이 교정치료를 시킬 필요가 있는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치아는 개인에 따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영구치가 다 자라지 않는다 해도 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치아 교정은 어릴수록 효과적이다

잘못 난 유치는 영구치로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영구치열에서 심한 부정교합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턱의 성장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 이는 턱의 변형을 가져와 주걱턱, 사각턱 혹은 돌출입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교정치료는 치열이나 골격의 발육이 왕성한 성장기에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소아가 교정 치료를 받을 경우 성장이 끝난 어른보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성장기에는 단순한 치아 이동뿐만 아니라 턱의 이동도 함께 일어나 안면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 치과교정학 박사 김준현 원장은 “주걱턱이나 돌출입 등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교정을 통해서 쉽게 고치기 어렵다. 이에 어린 아이일수록 치과 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정교합이 많거나 턱의 변형이 있을 경우 저작 기능에서 문제를 보이거나 이물질이 쉽게 치아 사이에 끼일 수 있어 위생상으로도 좋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 ● 교정과 함께 나쁜 습관도 잡아주자

턱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어릴 때부터 교정을 시작했다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턱의 변형도 함께 예방해야 한다. 보통 주걱턱이나 돌출입 등 턱의 변형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어릴 적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도 모르는 특정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 항상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를 할 때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대기 위해 턱을 내미는 경우나 자주 턱을 괴는 행동 혹은 딱딱하고 질긴 음식 먹어 턱관절에 무리를 주게 된다면 애써 한 교정치료가 무의미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아의 교정치료는 예방의 목적이 가장 크다.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고치는 것 또한 얼굴의 기형을 방지하는 방법이므로 아이에게 올바른 습관을 길러줌이 교정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presslife@bntnews.co.kr](mailto:presslife@bntnews.co.kr)

- ▶ 올 겨울, 해외여행 어디로 가실 거예요?
- ▶ 조안, 단아한 이미지 벗고 베이글녀 등극
- ▶ 돌싱男 “원수 안 봐서 좋지만, 성욕은 불편해”
- ▶ 男女 데이트비용 누가 계산? 더치페이 기준은?
- ▶ 장신영 또 결혼식? 초호화 웨딩드레스 자태 공개

[이전페이지](#)

[목록](#)

## China Hot Beauty



급격한 피부 노화? 해.



[양쥐언니의 패션 칼.]



칙칙하고 푸석한 피부.



'페미닌 무드 뽐뽐'.



동안 피부가 부럽다면.



봄철 피부 건조 주의.



미세먼지로 뒤영긴 피.



설리-수현-천우희, 3.



예민해진 피부를 위한.



산소 듬뿍! 피부가 숨.



뒤돌아서면 무너지는 .



봄, 글로시 메이크업 .

**le+**

Fashion  
vs Star  
em  
ole  
Gallery

**Beauty**

Hot Trend  
Beauty Styling  
Brand News  
Beauty Care  
People

**Entertainment**

TV  
Movie  
Music  
Culture  
Photo  
VOD

**Life**

Wedding  
Leisure  
E-life  
Love & Sex  
Economy  
Health



회사소개 | 웹마스터문의 | 사이트맵 | 청소년보호정책

비엔티뉴스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0835 제호 : 비엔티뉴스 등록일자 : 2009.04.11 발행·편집인 : 송영원 청소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207(신사동, 성도빌딩) 02-511-9822

Copyright bntnews All rights reserved.